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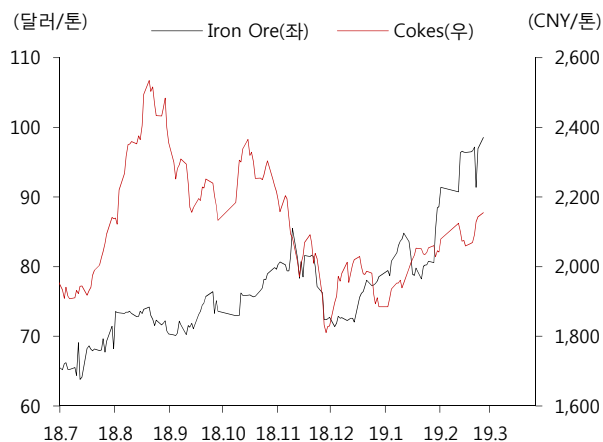
# Issue Comment

- ✓ 글렌코어 2020년까지 석탄생산량 1.5 억톤 유지 발표  
또한 구리 및 코발트 광산 생산량 감축 계획 발표
- ✓ 광산사고 및 폐쇄로 철광석, 석탄 등 주요 광물공급 차질 발생
- ✓ 수요 기대감과 함께 주요 광물 가격 상승 전망, 관련 원자재에 민감도가 높은 업체에 관심

## 글렌코어(Glencore), 구리와 코발트에 이어 석탄생산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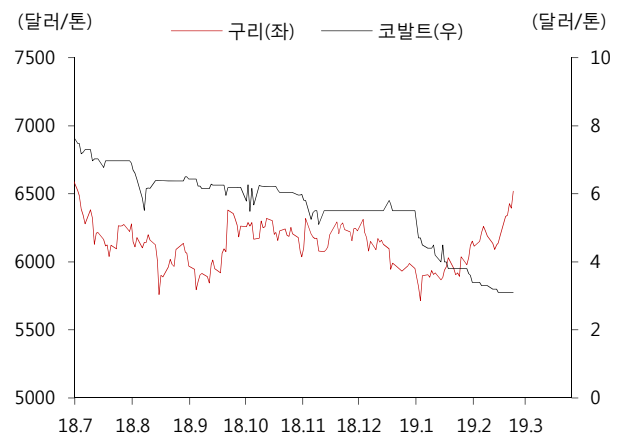
- 글렌코어(Glencore)는 2020년까지 석탄 생산량을 1억5천만톤으로 유지할 것으로 발표. 18년 Rio Tinto로부터 호주 석탄광산을 매수하는 등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나 기후변화와 온난화, 화석연료 사업 잠재적 피해를 염려한 주요 주주들의 압박으로 생산량 증가에 제약이 걸림
- 석탄생산 제한 발표 이전에는 콩고민주공화국(DRC)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리 및 코발트 광산에서의 생산량 감축 계획도 발표. Katanga 주에 소재하는 Mutanda 광산에서 약 2천명의 근로자를 감원하는 등 광산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함. ERG(Eurasian Resources Group Sarl) 역시 콩고(DRC)의 Boss 광산에서 코발트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. 단기간 진행될 예정이지만, 코발트 생산의 70% 이상이 콩고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, 글로벌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
- 또한 최근 중국에서도 광산 사고로 생산차질 발생하며 코크스를 비롯한, 아연, 연, 구리 등의 생산차질. 연초 Vale 광산폐쇄로 철광석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공급이슈가 빈번히 발생하는 모습
- 마중 무역분쟁 완화 및 주요 국가의 인프라투자 확대 등 수요에 대한 기대감 확대. 동시에 환경 문제로 인한 생산제한과 광산 폐쇄 및 생산차질에 따른 공급문제는 주요 광물 가격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. 관련 원자재에 민감도가 높은 업체에 주목할 필요

<그림 1> 철광석, 코크스 가격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SK 증권

<그림 2> 구리, 코발트 가격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SK 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